김성근 sungkeun.kim@miraeasset.com
조윤경 yoonkyung.joh@miraeasset.com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Thematic Radar

Ep. 24 스테이블코인: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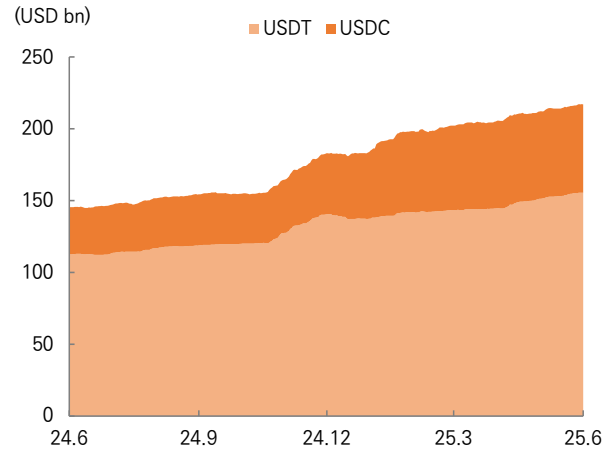
-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미국채 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치. 하원 통과 가능성도 높음
-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는 연계된 미국 국채의 수요 증진으로 연결. 법안은 준비금을 달러, 국채로 규정
- 새로운 국채 수급 주체가 필요한 미국에게 스테이블코인 육성은 필수. 관련 기업과 테마에 관심을 키울 시기

지난 17일 미국 상원은 GENIUS Act를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된 모든 상품에 대해 유동성이 높은 달러 및 단기 국채를 상품 시가총액과 1:1 비율로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월단위로 준비자산 내역의 의무적 공개다. 기존에는 발행사의 준비금 구성은 재량에 맡겨져 기업어음(CP)를 비롯해 금, 비트코인도 활용됐었는데, 준비금의 형태가 공식화된 것이다. 앞으로 최종 통과까지는 하원의 동의도 얻어야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인 STABLE Act가 위원회 단계를 통과했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안은 민주당 의원 18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구조적으로 미국채 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준비금이 요구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증가는 국채를 수요 증진으로 연결된다. 다른 화폐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가능하지만 현재 90% 이상이 달러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ENIUS 법안으로 준비금이 달러와 단기 국채로 공식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 확대는 미국 국채 수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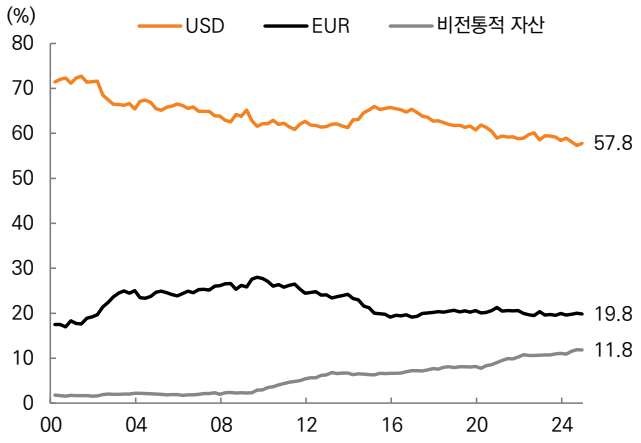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2008년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동성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채와 달러의 새로운 수급 주체가 되어 줄 수 있는 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최대 3.7조달러 규모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민간 섹터 중심으로 국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잠정적으로 미국채의 1~3위 보유국인 일본(1조달러), 중국(7,070억달러), 영국(6,687억달러)이 보유한 미국채 양을 압도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시총 규모는 약 2,500억달러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USDC의 발행 기업인 Circle의 주가가 IPO 이후 약 400% 상승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기업과 테마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규모: 전년대비 약 49% 상승



주: 2대 Stablecoin 빌헹시(Circle, Tether) 기준
자료: CoinmarketCa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앙은행들의 FX 준비금 구성 추이



자료: IM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